



### 농림수산물부 소식



#### ◎ 농어업 · 중소기업 손잡았다

- 농식품부 ·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MOU) 체결
- 농식품부 장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현장애로 끝까지 찾아

농림수산물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농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화) 11시 한국농어촌공사 대회의실에서 장태평 장관과 김기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농림수산물 관련 녹색 중소기업 발굴 육성 △공동연구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농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장태평 장관을 초청하여 개최한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그 동안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간담회시 제기된 중소기업의 현장건의를 중심으로 ①중소기업중앙회 농수산물분과위원회 개최(7.21) ... ②중기인/농식품부 실무자 1:1 심화토론(9.22) ... ③중기인/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면담(9.24)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등 새로운 방식의 ‘정책간담회 모델’을 제시하여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하는 주체가 농가(農家)라고 생각하지 않고, 농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농어를 포함한 200만개의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을 비즈니스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중소기업과 농식품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 중심의 방어적 정책기조를 수출확대, 정책대상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 공세적으로 전환해 가는 농식품 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높이 평가함을 전달하는 한편, 국내 식품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결국은 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강한 농식품산업 만들기’의 핵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소식



#### ◎ 과학의 전당에서 「신비의 버섯 특별기획전」 열려

농촌진흥청과 국립과천과학관 MOU체결 후속

농촌진흥청(정장 김재수)과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 및 생명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월 10일, 생명과학 관련 전시,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상호협력력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립과천 과학관 2층 중앙홀과 자연사관내 탐구교실에서 한반도의 생태계 코너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버섯을 전시하는 신비의 버섯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버섯은 맛과 영양분이 풍부하고 다양한 약리작용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요리나 건강식품의 재료와 한약재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상용으로도 개발되어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야생 버섯이 출현하고 있고 야외 활동이 빈번한 여름철에는 독버섯에 의한 중독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버섯에는 채소와 육류의 영양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기류에 비해 열량은

났으면서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 무기염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심각한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식용버섯에는 접시곶곶이그물버섯, 달갈버섯, 꼬꼬리버섯, 큰갓버섯 등이 있고, 약용버섯에는 노루궁뎅이버섯, 상황버섯, 말굽버섯, 소나무잔나비버섯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이번 특별 기획전에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야생버섯 150 여점을 전시하며 관찰체험교실을 열어 관람자들이 신비한 버섯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버섯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사진자료와 책자를 통하여 식용 버섯과 독버섯의 구별, 독버섯 중독 증상, 독버섯을 잘못 먹었을 경우 대처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독버섯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박기훈, 농업유전자원센터 석순자 031-290-0365



### ◎ 신종플루 방역관리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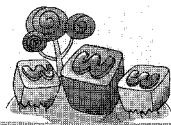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구제역 등 국가 재

난형 가축전염병이 유입·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돼지고기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역·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금년 4월말부터 멕시코·미국의 사람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이하 '신종플루')가 국내 돼지·닭 등 가금류에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신종플루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 및 국내 사육 돼지(3,006농가 51,102두)·가금류(175 가금농가 353계사) 등을 대상으로 감염동물의 조기 검색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09.10.01. 기준) 돼지 29,699두에 대한 검사(58.1%)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신종플루 진단키트 및 예방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은 2008년도부터 "AI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예찰위주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동절기 11~2월)를 맞이하여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연간 계획대비 172,739건 중 87,865건에 대한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HPAI 음성)

검역원은 특히,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등에서의 지속적인 구제역 발생과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방역대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국 등 위험국 여행객에 대한 휴대축산물 집중검색, 입국장의 발판소독조 운영,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주기적인 예찰·혈청검사(95천건) 등을 통한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며, 또한 구제역 유입 위험요소에 해당되는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3천명), 중국산 수입건초 사용농가·판매업소(448개소)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및 구제역 발생국산 현지 양돈장 경영인(7명) 방역교육 실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검역원은 강도 높은 가축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대 구축 및 주요 질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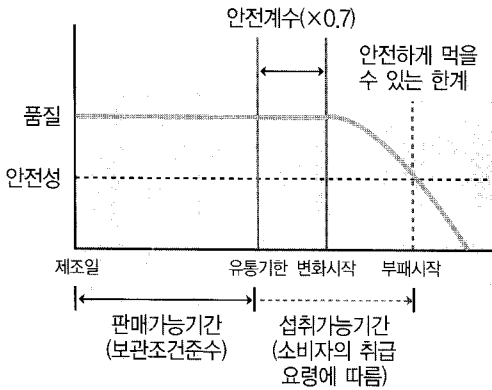
대한 효과적인 진단·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축방역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 의약품 안전청 소식



#### ◎ 식약청, “유통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을 아시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소금 등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생산된 '제조연월일(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통조림식품·잼류·장류·김치류·젓갈류·절임식품 등은 유통기한 대신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품질유지기간'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한편, 식약청은 수입식품에는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유통기한(sell by date,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영업자가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등이 담긴 표시정보를 확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소식



#### ◎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 금융연합회로 전환해야”

KREI,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0월 13일 aT센터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REI 황의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사업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선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경제연합회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은 개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자금 조달 방안의 명확함이 필요하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무이자자금과 손실보조 지원, 교육지원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합병 인센티브자금, 조합감사위원회, 인력개발 등의 지원사업은 현재보

다 더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분리된 금융사업(금융지주회사)으로부터 이익금의 원활한 분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독자적인 자본금을 보유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금시장통합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금융연합회를 설치해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부족한 자본금을 농협체제 내부에서 조달하도록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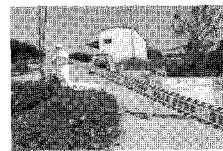


### ◎ 방역본부, AI 발생상황 부여·초동방역팀 운영 실태점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초동방역

팀이 즉각 출동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하기 위하여 가상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 완벽한 초동방역태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0일(토)에 실시한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불시에 본부에서 초동방역팀 투입 지시를 8개도본부에 시달하여 발생지역에 편성된 초동방역팀이 AI 긴급행동지침 및 초동방역팀 임무수행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전개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방역본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초동방역팀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8개도본부의 AI 발생상황 시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초동방역팀 투입명령을 접수받은 후



임무수행절차에 따라 △초동방역물자 구비 및 설치·가동 △농장주에게 초동방역팀 역할 소개 및 농장협조 당부 △개인 및 차량 소독 실시 △무인통제소 및 통제초소 설치 운영 △농장진입로 소독 △역학조사 실시 △상황종료 시 철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정확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검증·보완하는 기회가 됐다.

방역본부는 훈련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초동방역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본부가 금년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초동방역팀을 운영한 실적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생한 가금류농장 18호에 대하여 17개팀 연인원 82명이 투입되어 초동방역활동을 펼쳤다. 의심축 검사 결과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5형 5호와 H9형 5호가 각각 발생하였으며, 초동방역팀 활동이 AI 확산방지와 조기 근절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HACCP  
기준원  
소식



### ◎ 신임 HACCP기준원장에 석희진씨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제2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 석희진씨를 임명했다.

석 원장은 34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 몸담았던 행정관료 출신으로 축산물위생과장, 축산정책팀장 등을 역임 했다. 석 원장은 지난 20





## Government & Agency | 정부 및 기관 소식

일 기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사를 통해 “전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준원을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고 조직원의 사기를 제고시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농수산물 유통공사 소식



#### ◎ aT센터에서 ‘2009 한국전통주 품평회’ 열려

■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루는 ‘2009 한국전통주 품평회’가 12일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통주 품평회는 막걸리(탁주), 청주·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기타전통주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품평회 현장에는 9개 시·동에서 추천한 제품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5개 부문 86개 전통주(막걸리 16, 청주·약주 17, 과실주 24, 증류식소주 14, 기타전통주 15)가 선보였다.

국내의 주류전문가와 소믈리에 등이 심사를 맡아 부문별로 금·은·동상과 인기상 2점씩을 선정했으며, 입상한 전통주는 ‘2009 Food Week’ 등 식품박람회 등에 특별 전시되며,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전시회 및 주류박람회 등에 참가우선권이 주어지고 참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14일 시상식 직후에는 ‘전통주 산업발전’ 세미나도 개최됐다.

aT 관계자는 “전통주 산업은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지역 특산주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번 품평회를 우리 전통주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주를 명품화·세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농어촌공사 소식



#### ◎ 해외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2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어촌공사는 국내의 농업개발을 100년이 넘게 주도해 오고 있는 공기업으로 67년부터 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해오고 있으며, 한수원은 국내 유일의 수력 및 원자력 분야 전문공기업으로 국내 수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에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에서 50년 넘게 축적된 관개 및 농업용수개발 분야 기술과 경험을 가진 농촌공사와 수력발전분야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해외에서 농업과 수력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사는 협약의 첫 번째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라오스에 관개 및 수력발전 겸용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력은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 녹색성장사업을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과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의 질을 높이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 새로운 공기업의 해외진출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mm 이상의 강수량을 가진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과 다수의 댐 적지를 가지고 있으며, 약 2만 MW 정도의 수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수자원 및 전력개발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답사와 라오스 정부와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